

프로야구 전망대



이용규 < > **안치홍**
 타율 0.247 (81타수20안타·득점권 타율 0.227)
 18득점 5타점 8도루 12볼넷 3사구 13삼진 2병살
 타율 0.195 (77타수15안타·득점권 타율 0.185)
 10득점 6타점 1도루 8볼넷 2사구 17삼진 4병살

이용규·안치홍 살아야 KIA 타선 집중력 살아난다

‘호랑이 군단’이 선두 질주를 위한 큰 고비를 맞았다.

KIA 타이거즈가 원정 6연전을 위한 짐을 꾸렸다. 이번 주 만나게 되는 상대는 공동 1위의 두산 베어스와 3위를 지키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다.

충충한 전력으로 초반 힘겨투기를 하고 있는 강팀과의 원정길이지만 마운드가 빠격거리면서 KIA의 1위 자리가 위태롭다. KIA는 최하위 NC와의 승부에서 진담 무승부를 남기는 등 지난 주 2승1무2패를 기록했다. 위기속 선발진의 호투를 생각하면 삼성과의 3연전은 아쉬움이 크다.

김진우가 7이닝 1실점, 임준섭이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했지만 8회 계투진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각각 0-6완봉패와 1-5역전패를 당했다.

KIA는 지난 28일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한 신인 박준표와 팔꿈치가 좋지 않은 말형 최항을 2군으로 내리고 박지훈과 한승혁을 엔트리에 등록시켰다. 복귀전에 나선 박지훈의 구위가 살아난 것이 반갑지만 여전히 불펜은 KIA의 골칫거리다.

여기에 소사의 위력이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서재응도 종아리가 좋지 않는 등 선발진도 위태위태하다. 마운드가 흔들리는 만큼 KIA는 올 시즌 강점으로 떠오른 공격으로 기선 제압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난 삼성과의 3연전에서 불펜 난조가 치명적이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한 타선의 집중력 부재도 패배의 큰 원인이 됐다.

톱타자 이용규와 타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할 안치홍의 부진이 KIA 타선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두산·넥센 상대 지옥의 원정 6연전 골칫거리 불펜에 1위 수성 위태위태 기동력 야구 살아야 마운드 약점 보완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29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연속
1 KIA	20	13	6	1	0.684	1패
1 두산	20	13	6	1	0.684	4승
3 삼성	20	13	7	0	0.650	1승
3 넥센	20	13	7	0	0.650	1패
5 LG	21	12	9	0	0.571	1승
6 롯데	20	9	10	1	0.474	1패
7 SK	21	9	11	1	0.450	2승
8 한화	21	4	16	1	0.200	2패
9 NC	21	3	17	1	0.150	9패

안치홍은 공·수의 불균형이 눈에 띈다. 지난해 실수 연발을 했던 수비에서는 엄격 레이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이 좀처럼 터지지 않고 있다.

안치홍은 0.195(77타수15안타·득점권 타율 0.185) 타율로 10득점 6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20경기 중 10경기에서 안타를 때리 못했고, 볼넷은 8개지만 삼진은 17개나 된다. 병살도 4차례 나오면서 공동 5위다.

도루는 지난 27일 삼성전에서 처음 기록하는 등 기대하는 기동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마운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선의 힘, 이용규와 안치홍이 그 키를 쥐고 있다.

최희섭의 거침없는 타격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5일 NC와의 2차전에서 손목 부상을 당했던 최희섭은 바로 다음날 삼성과의 경기에서 수비까지 소화하며 부상 투혼을 했다. 27일에는 시즌 6호포와 함께 나흘로 4타점을 기록하며 최정(7홈런·26타점)에 이어 홈런(6), 타점(25) 2위를 달리고 있다.

양현종의 연속행진도 관심사다. 양현종은 지난 주 삼성을 상대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기록하며 4승째를 기록했다. 직구의 위력이 되살아나면서 양현종은 선발로 나선 4경기에서 모두 승리투수가 됐다. 올 시즌 KIA 에이스로 우뚝 선 양현종의 연속행진이 기대된다.

한편 30일에는 KIA 소사와 두산 노경은이 1위 자리를 놓고 마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여계 재할을 해왔던 윤석민은 한화와의 2군 원정경기에서 1군 복귀를 위한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특히 이용규의 역할이 아쉽다. 끈질긴 승부로 상대 배터리를 괴롭히던 이용규는 올 시즌 성급한 승부를 펼치며 쉽게 타석에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올 시즌 타율은 0.247(81타수20안타·득점권 타율 0.227)이며 12차례 볼넷을 골라 낸 것에 비해 13번 삼진으로 물러났다.

타석의 부진에도 이용규의 발은 여전히 좋다. 이용규의 올 시즌 출루율은 0.346로 전체 31위에 머물러 있지만 8차례 베이스를 훔치면서 도루 공동 5위다. 그래서 더 이용규의 침착한 승부가 아쉽다.

올 시즌 1000안타를 채웠던 이용규는 도루 기록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두 차례 더 도루에 성공하면 이용규는 통산 9번째로 9년 연속 두자릿수 도루에 성공하는 대도가 된다.

목포시, 청자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우승

전남 사회인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제3회 전남연합회장기 겸 제5회 청자배 생활체육 야구대회'가 20일부터 27일부터 강진 베이스볼파크에서 열

전을 펼쳤다. 20팀 7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19개팀을 치러 목포시가 우승기를 거

머쥐었고, 화순군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최우수 선수상은 목포시 주이태, 우수선수상은 화순군 고영준, 감

20팀 700여명 참가 준우승은 화순군 차지

독상은 목포시 김대일 감독이 각각 수상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기존 16개 생활체육 야구팀이 참가해

매년 개최해 오던 청자배 대회를 각시·군을 대표하는 연합팀들이 참가하는 전남연합회장기 대회와 결합함으로써 5월 7일 열리는 전남도민체전 야구 종목에 미리 예측할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삼성 유니폼 신용운... KIA 팬들 앞 '눈물의 마운드'

특 & Talk

영웅이 탄생하고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라운드. 환희와 감동의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러운 눈물로 쓰인 그라운드의 잔혹사도 있다.

지난 27일 무등경기장 마운드에 파란 유니폼을 입은 투수 신용운(사진)이 섰다. 그의 등장에 오랜 KIA팬들의 마음은 복잡해졌을 것이다. 3-0으로 앞선 6회 무사 1루, 추가 점수가 간절한 상황이었지만 '아픈 손가락'이 다시 또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사이드암 신용운은 150km의 강속구를 앞세운 KIA의 수호신이었다. 또 중간에서 마무리로 또 선발로 실세했던 이 공을 뿌리며 KIA 암흑기의 무거운 마운드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눈물의 에이스'였다.

암흑기 흑사의 대명사가 됐던 신용운은 2007년 겨울 도망치듯 군대로 떠났다. 경찰청에서 삼척입은 몸과 마음을 다독이면서 베이징 올림픽과 WBC 환호의 순간을 아픈 마음으로 지켜냈다. 팔꿈치가 닳도록 서고 싶었던 V10의 무대에도 신용운은 없었다.

실력에 맞는 운은 없었다. 신용운에게는 아픈 몸만 남았다. 2005년 팔꿈치에 이어 2011년 어깨까지 세 차례 수술대에 올랐다.

2011년 겨울 다시 한 번 신용운이 긴 탄식을 내뿜었다. 계속된 부상에 재기를 확실하지 못한 KIA는 2차 드래프트 40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제외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재활 센터인 삼성 트레이닝센터(STC)를 보유한 삼성은 자신있게 신용운을 선택했다. 명단을 확인하던 신용운의 침묵이 아팠던 겨울이었다.

10년의 타이거즈 세월을 뒤로 한 신용운의 변신은 쉽지 않았다. '남은 것이 없다'는 상처, 좌절감과 싸우며 전정 같은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지만 꼭



돌아가고 싶던 마운드였다. 광주로 오던 길의 마음은 프로 첫 무대에 오르던 날과 같았다.

경기 전 만난 신용운은 "다시 공을 던지고 싶다. 1군에 오르고 싶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광주로 오는 동안 카 퍼레이드를 하는 것 같았다"며 오랜 재회에 한참 동안 이리저리 얘기를 했다.

지나가는 구단 관계자들을 붙잡고 "준비 잘했다. 꼭 던지게 해주라"는 말도 여러차례 했다.

그토록 서고 싶었던 마운드에 오른 신용운의 심정은 팬들의 마음처럼 복잡했다. "마운드 오를 때 팬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면서 웃던 신용운은 "마운드에 서니 울컥했다.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쟁자들이 많다. 경쟁이 치열하지만 꼭 다시 광주를 찾겠다"고 말했다. 1.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볼펜 피칭 도중 찾아온 갑작스런 근육통에도 145km의 공을 뿌리며 신용운이 부활했음을 알렸다.

수호신이 돌아온 2013년 봄, KIA 팬들에게 또 다른 '아픈 손가락' 한기주가 잠시 그라운드를 떠난다. 신용운과 함께 암흑기를 버텼던 한기주는

혹독했던 시간과 길어진 시간에 팔꿈치, 손가락에 이어 어깨가 탈이 났다.

"공통되기에 가서 손가락, 팔꿈치, 어깨를 가져오고 싶다"던 한기주의 한탄이 신용운의 오늘과 겹쳐 쓸쓸하다.

성적이 우선인 치열한 경쟁의 무대. 기쁨의 환호 뒤에는 슬픔의 눈물이 있는 곳. 누군가는 성적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곳. 그라운드의 잔혹사는 정글의 법칙 속에 필연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연재가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페사로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 월드컵대회 리본 종목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연재 월드컵 한국 첫 은메달

리듬체조 리본종목

리듬체조 '조정' 손연재(19·연세대)가 올해 두번째 출전한 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손연재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페사로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대회 개인종목별 결선 리본 종목에서 17.483점을 획득, 1위 벨라루스 스타니우타(17.850·벨라루스)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가 FIG 리듬체조 월드컵에서 은메달을 손에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가족&스승사랑 페스티벌

| 가족·스승 동반 이벤트 | 행사기간 2013. 5. 1(수) ▶ 5. 31(금)

행사1 중식당 SET메뉴, 일반식사 4인 이상 드실경우 1인무료

〈특별메뉴〉(대사이즈 주문시(사사이즈 가격 적용 판매)
 돼지고기 탕수육(大) ₩41,800 → ₩30,800
 전가복(大) ₩82,500 → ₩60,500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행사2 양식당 스테이크(안심/등심) 4인 이상 드실경우 1인무료

5월 3~5일
 든가스 → 왕돈가스 업그레이드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행사3 중식당&양식당 이용고객 경품추첨 (당일 명함 수거 및 번호 배부 추천)

5월 3일~10일, 15일(점심) 오후 2시, (자네)오후 8시 추첨
 레스토랑 상품권 각 1매

행사4 특별 상설부페 개시

성인 ₩33,000
 어린이 ₩22,000

5월 4일 저녁, 5월 5일 점심 상설부페(1층 소년화장)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